

국내 간호사복 착용현황에 대한
지역별, 병원규모별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Uniform of Nurses
According to the Regional and Hospital Size Differences

김포대학 패션디자인과 조교수
김 선 희

Dept. of Fashion Design, Kimpo College
Son-Hee Kim
(2001. 9. 27 접수)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investigating and comparing the differences in the uniform of nurses according to regions and hospital size in Korea. This study takes two large regions as its survey area; one is Seoul,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and the other is Daejeon and Chungcheong Province. The hospital size is divided into general hospitals and neighborhood hospitals. The survey was conducted among the nurses working in 12 randomly-selected hospitals and its statistical results are analysed from 818 respondents' questionnaires.

The results are divided into 3 categories as follows; 1) Results of analysis of survey on the uniform of nurses : Nurses usually wear two-piece suits and more than half of the hospitals choose a white-color pattern. And the nurse's uniform with color varying according to their position and ward is considered to be desirable; 2) Analysis on regional differences : In the case of Daejeon and Chungcheong Province, there is a relatively high ratio of respondents who answered questions with 'high percentage of young nurses', 'position differentiation by means of different design and fabric according to ward'. In case of Seoul,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questions with 'use of a patterned textile in nurses' uniform', 'ready-made size system' are higher; 3)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accordance with hospital size : In the case of general hospitals, there is relatively a high ratio of respondents who answered questions with 'use of different design and fabric according to a nurse's position', 'use of patterns in nurses' uniform'. In the case of neighborhood hospitals, there is a high ratio of respondents with 'use of classical one-piece or two-piece type wear', 'ready-made type size system', 'obligatory use of a nurse's cap'.

Key words: Nurse, Uniform, Region, Hospital Size; 간호사, 유니폼, 지역, 병원규모

I. 서 론

급속한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 이 논문은 2001학년도 김포대학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있는 현대사회에서 의료부문의 발전 역시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병원을 찾는 환자의 수도 많아졌으며 이에 따라 의사, 간호사 및 일반 종사자들의 업무량도 급격히 증가·세분화되어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직으로서의 발달은 일의 종류나 특성, 일하는 사람의

환경 등에 따른 적합한 의복구성의 요구도를 높이지게 하였고 의복의 역할에도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인간공학의 출현으로 더욱 급격히 발달하였다²⁾.

역사적으로 최초의 간호사복은 Catholic 수녀복과 Quaker 교도의 의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생겨났으며,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인 간호사복의 유니폼화가 시작되었고³⁾, 시간이 지나면서 캡의 사용⁴⁾ 및 간호사복에 대한 여러 변화가 시도되어 오늘날과 같은 간호사복이 정착되었다⁵⁻⁷⁾. 국내에는 1900년초 한복을 변형한 형태의 간호사복에서 시작하여 1960년대 이후 무릎 아래 길이의 원피스 형태의 간호사복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⁸⁾.

최근의 간호사 유니폼은 과거의 특정집단의 성격 표현이라는 단순함에서 벗어나, 상징성의 역할이 매우 커졌고 그 외에 기능성과 심미성의 표현을 강조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 특히 복잡한 구조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그 구성원들의 직무 수행에 능률을 배가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이에 유니폼의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직업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의복보다는 활동적이며 기능적인 의복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인간 본연의 미에 대한 추구라는 관점에서 무엇보다 현대적 미감각에 부합될 수 있는 심미성의 표현 여부가 유니폼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⁹⁾. 특히 간호사의 유니폼은 한국 간호사의 윤리강령에 나와 있듯이 의모를 단정히 하며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긍지를 높여야 하며 활동적이고 안정감을 주어야 환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신뢰감을 일으킬 수 있다¹⁰⁾.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 고전적 형태인 간호사 복장에서 탈규범화가 이뤄지고 있는데¹¹⁾, 이런 현상은 병원내 타 직종이나 환자들이 다소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¹²⁾ 10) 간호사의 개성표출 및 활동의 편이성을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¹³⁾. 또한 이러한 간호사복의 변화는 지역 및 병원규모 등에 따라 다소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의 흐름과 간호사의 요구에 부응한 보다 개성 있고 효율적인 새로운 간호사복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인천지역 및 대전·충청지역에 위치하는 종합 및 준종합병원 12곳을 대상으로, 각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간호사복 착용현황 및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현재 착용되는 간호사복의 문제점을 추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지역간 및 병원규모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간호사복 도입시에 필요한 개선방안 및 디자인선택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측정 도구

측정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조사대상은 간호사복을 착용하는 간호사들로 하였고, 본 조사에 사용한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2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인구통계학적 문항들로 병원명, 병원규모, 지역,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위, 근무부서, 임상경력, 직위구분에 따른 디자인의 차이유무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은 간호사복 전반에 관한 문항들로 착용되고 있는 간호사복의 형태 및 무늬와 색상,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간호사복의 형태 및 무늬와 색상, 캡 착용여부 및 문제점과 요구사항, 간호사복의 사이즈 선택방법 및 요구사항, 사용하는 스타킹의 색상 및 요구사항, 간호사복변경 경험여부 및 경험횟수, 변경된 사양과 현재 간호사복의 만족도, 주로 착용하는 간호사복 각 항목에 대한 만족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서울·경기·인천지역 및 대전·충청지역에 위치하는 종합 및 준종합병원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랜덤하게 선출된 12개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의료시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근접 경기지역과, 이외의 지방 광역시 중 대전광역시와 근접 충청지역으로 설정해서, 각 지역별 조사대상 병원을 종합 및 준종합병원으로 적절히 안배한 후 각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포는 서울·경기·인천지역에 510부, 대

전·충청지역에 414부를 배포하였고 각각 458부, 392부를 회수하였다. 그 중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적합하지 못한 설문지를 제외시킨 후 총 818부가 연구분석에 사용되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과 정리에는 SPSS for Windows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전반적 착용현황분석, 지역별·병원규모별 차이의 통계적 비교·검증에는 빈도와 백분율 및 t-test, 교차분석 등이 사용되었다.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1. 간호사복 착용 전반에 대한 조사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정리한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간호보조원을 제외하고 정식 간호사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지역' 이 53.4%, '대전·충청지역' 이 46.6% 이고, 병원규모별로는 '종합병원' 이 53.5%, '준종합병원' 이 46.5% 였다. 직위별로는 평간호사에서부터 간호감독 이상으로 가능한 한 모든 직위의 간호사들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였고, 임상경력 역시 '1년 미만' 의 간호사에서 '20년 이상' 의 간호사까지 폭넓게 조사하였다. 또한 표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근무부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안과 및 기타 진료실에 대해 조사하였고, 이 외에 신생아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분만실에 주로 근무하는 간호사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간호사복에 대한 전반적 착용현황 및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자주 착용하는 간호사복 형태를 살펴보면 바지투피스형이 5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투피스형이 27.1%, 원피스형이 1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전적인 원피스형이 전체 착용 간호사복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이전의 연구결과^{13, 19)}와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최근에 들어와 간호사복 형태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간호업무에 바람직한 간호사복 형태를 살펴보면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문항	항목	빈도	백분율(%)
지역별	서울·경기·인천지역	437	53.4
	대전·충청지역	381	46.6
병원규모	종합병원	438	53.5
	준종합병원	380	46.5
연령	만 21~25세	361	44.1
	만 25~30세	251	30.7
	만 31~35세	107	13.1
	만 36세 이상	99	12.1
결혼여부	미혼	274	33.7
	기혼	539	66.2
	이혼, 사별	1	0.1
학력	고졸	5	0.6
	전문대졸	625	77.4
	대졸	124	15.4
	대학원 이상	53	6.6
직위	평간호사	653	80.3
	책임간호사	73	9.0
	수간호사	67	8.2
	간호감독 이상	20	2.5
임상경력	1년 미만	113	13.9
	1년~3년 미만	213	26.1
	3년~5년 미만	149	18.3
	5년~10년 미만	179	22.0
	10년~15년 미만	92	11.3
	15년~20년 미만	35	4.3
	20년 이상	34	4.2

'원피스형' 이나 '투피스형' 이라고 대답한 경우는 각각 1.2%, 5.7%에 지나지 않았고, '바지투피스형' 이 41.3%를 차지해 스커트보다는 바지형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위 및 병동에 따라 다른 형태' 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경우도 39.3%나 차지해 2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개성 및 필요에 따른 자유로운 형태' 도 12.4%로 나타난 것을 고려하면 다른 연구결과²⁰⁾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간호사복에 있어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착용중인 간호사복의 옷감형태 및 색상을 살펴보면, 무늬가 있는 경우가 약 68%를 차지하였고, 색상은 흰색이 82.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아직은

〈표 2〉 간호사복 착용현황 및 선호도 조사결과

문항	항목	빈도	백분율(%)
자주 착용하는 간호사복 형태	원피스형	106	13.2
	투피스형	218	27.1
	바지투피스형	479	59.7
간호업무에 바람직한 간호사복 형태	원피스형	10	1.2
	투피스형	46	5.7
	바지투피스형	332	41.3
간호사복 형태	직위 및 병동에 따라 다른 형태	316	39.3
	개성 및 필요에 따른 자유로운 형태	100	12.4
간호사복 옷감형태(무늬)	있다	459	56.1
	없다	359	43.9
간호사복 옷감형태 (색상)	흰색	677	82.8
	녹색	44	5.4
	분홍색	29	3.5
	아이보리색	63	7.7
가장 바람직한 간호사복 색상	하늘색	5	0.6
	흰색으로 통일	44	5.5
	흰색바탕에 다른 색상의 무늬	293	36.5
	다른 색 계열	115	14.3
	직위 및 병동에 따라 다른 색상	305	38.0
간호사복 사이즈 선택	개성 및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색상	42	5.2
	기타	3	0.4
	각자의 치수를 재서 맞춤 대·중·소 중에서 선택	685	85.3
간호사복 사이즈선택 선호도	현재의 사이즈체계에 만족	118	14.7
	다양한 사이즈체계 필요	255	31.8
	체형별 구체적 사이즈 체계 필요	118	14.7
간호사복 사이즈 선택 선호도	체형별 구체적 사이즈 체계 필요	428	53.4

흰색계열에 다른 색상의 무늬를 사용하는 병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아이보리색, 녹색, 분홍색, 하늘색이 10% 미만의 비율로 나타나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간호사들이 가장 바람직한 간호사복 색상으로 여기는 것은 '직위 및 병동에 따라 다른 색상'의 간호사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38.0%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흰색바탕에 다른 색상의 무늬'를 선택하는 것이 36.5%로 나타났고 이 외에 '다른 색 계열'도 14.3%나 차지해 현재의 단순한 '흰색'

바탕의 간호사복보다는 더욱 다양하고 자유로운 색상과 무늬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간호사복 사이즈 선택에 대해서는 현재 85.3%가 '각자의 치수를 재서 맞추는 형태'로 나타났고, 간호사복의 사이즈 선택 선호도에서는 '현재의 사이즈체계에 만족' 하는 경우가 31.8%이고 '다양한 사이즈체계가 필요하다'와 '체형별로 구체적 사이즈체계가 필요하다'는 경우가 각각 14.7%, 53.4%로 나타나 전체의 68.1%가 현재보다는 좀 더 다양하고 체형에 알맞은 사이즈체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 앞으로 더욱 체형에 알맞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이즈체계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표 3〉에는 간호사들의 캡 착용 및 스타킹 색상관련 문항에 대한 착용현황과 선호도 조사결과를 정리해 놓았다.

간호업무시 캡 착용여부는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가 54.2%로 나타나 과반수를 차지하였는데, 이 결과는 '반드시 또는 대부분의 경우 캡을 착용하고 있다'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던 이전의 조사결과^{19, 20)}

〈표 3〉 캡 및 스타킹 착용현황과 선호도 조사결과

문항	항목	빈도	백분율(%)
간호업무시 캡 착용여부	반드시 착용	331	41.3
	대부분 착용	29	3.6
	가끔 착용	7	0.9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	435	54.2
캡 착용 선호도	필수적이다	34	4.3
	크게 필요하지 않다	247	30.9
	착용하지 않는 편이 낫다	443	55.4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르도록	75	9.4
스타킹 색상 선택	비둘기색 사용	6	0.7
	살색 사용	290	36.2
	비둘기색, 살색 겸용	369	46.0
	커피색 사용	27	3.4
	양말 착용 자유롭게 선택	89	11.1
스타킹 색상 선호도	비둘기색만 사용	21	2.6
	살색만 사용	9	1.1
	비둘기색, 살색 겸용	245	30.9
	비둘기색, 살색 겸용 각자의 취향대로 선택	368	46.3
		172	21.7

와 비교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캡 착용 선호도에서도 '착용하지 않는 편이 낫다'가 55.4%, '크게 필요하지 않다'가 30.9%를 차지하였고,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르는 것이 좋다'도 9.4%로 나타났고, 반면 캡 착용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간호사는 단지 4.3%에 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의사나 일반사무직,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간호사들의 캡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해 볼 때 실제 캡을 사용하는 간호사들의 의견과 관찰자적 입장에서의 의견에서 다소 큰 직종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타킹 색상에 있어서도 캡 착용여부와 마찬가지로 이전의 조사결과²⁰⁾와 비교시 큰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전에는 대부분 '비둘기색상'을 사용한 것에 비해 '살색'이나 '비둘기색과 살색 겸용'이 전체의 82.2%를 차지하고 있고, '양말 착용'의 경우도 11.1%나 차지해 간호사복 디자인 및 색상 등의 변화와 더불어 스타킹 착용이나 색상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타킹 색상 선호도에서는 '살색', '비둘기색과 살색 겸용' 외에도 '각자의 취향대로 선택' 하길 원하는 경우가 21.7%나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2. 간호사복장의 지역별 차이 분석

지역별 간호사복의 착용현황 차이분석을 위해 각 문항들에 대해 빈도와 퍼센트, χ^2 검증을 실시하여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지를 알아본 결과 여

러 문항에 있어서 $p \leq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에 대해서 <표 4>에서 <표 7>까지에 각 항목의 빈도와 퍼센트 및 χ^2 값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별로 보았을 때 연령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는데,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경우보다 대전·충청지역에서 '만 21~25세'의 젊은 간호사들이 많았고, '만 36세 이상'의 노련한 간호사의 비율이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간호사 직위 구분방법을 살펴보면 병동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디자인과 옷감'을 사용하는 경우가 서울·경기·인천지역이 33.6%로 대전·충청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병동에 따라 다른 디자인이나 옷감'을 사용하는 경우는 대전·충청지역이 26.8%인데 비해 서울·경기·인천지역은 전혀 없어 큰 차이점을 나타냈다.

지역별 간호사복 관련 문항의 차이분석이 <표 5>에 정리되어 있는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착용하는 간호사복 형태는 두 지역 모두 '바지투피스형'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경우 '투피스형'이 37.6%를, 대전·충청지역의 경우 '원피스형'이 22.3%를 차지하여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간호업무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간호사복의 형태에 대해서 서울·경기·인천지역은 '직위 및 병동에 따라 다른 형태'가 42.2%, '바지투피스형'이 38.0%, '개성 및 필요에 따른 자유로운 형태'가 11.8%, '투피

<표 4> 연령 및 직위 구분방법에 대한 지역별 차이분석

문항	지역	서울·경기·인천(n=437)		대전·충청(n=381)	
		빈도	Col %	빈도	Col %
연령	만 21~25세	174	39.82	187	49.08
	만 25~30세	144	32.95	107	28.08
	만 31~35세	56	12.81	51	13.39
	만 36세 이상	63	14.42	36	9.45
$\chi^2 = 9.731^*$					
간호사 직위 구분방법	병동에 따라 다른 디자인이나 옷감	0	0.00	102	26.77
	직위에 따라 다른 디자인이나 옷감	290	66.36	219	57.48
	일률적인 디자인과 옷감	147	33.64	60	15.75
$\chi^2 = 145.316^{***}$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이하 모든 표에 적용)

〈표 5〉 간호사복 디자인 및 색상, 무늬 관련 문항의 지역별 차이분석

문항	지역	서울·경기·인천(n=437)		대전·충청(n=381)	
		빈도	Col %	빈도	Col %
주로 착용하는 간호사복 형태	원피스형	23	5.34	83	22.31
	투피스형	162	37.59	56	15.05
	바지투피스형	246	57.08	233	62.63
$\chi^2 = 81.964^{***}$					
간호업무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간호사복 형태	원피스형	2	0.46	8	2.16
	투피스형	33	7.60	13	3.51
	바지투피스형	165	38.02	167	45.14
	직위 및 병동에 따라 다른 형태	183	42.17	133	35.95
	개성 및 필요에 따른 자유로운 형태	51	11.75	49	13.24
$\chi^2 = 15.261^{**}$					
착용 간호사복의 무늬 유무	있다	296	67.73	163	42.78
	없다	141	32.27	218	57.22
$\chi^2 = 51.461^{***}$					
착용 간호사복의 색상	흰색	338	77.35	339	88.96
	녹색	17	3.89	27	7.09
	분홍색	14	3.20	15	3.94
	아이보리색	63	14.42	0	0.0
	하늘색	5	1.14	0	0.0
$\chi^2 = 66.788^{***}$					

스형'이 7.6%를 차지한데 비해, 대전·충청지역에서는 '바지투피스형'이 45.1%, '직위 및 병동에 따라 다른 형태'가 36.0%, '개성 및 필요에 따른 자유로운 형태'가 13.2%, 그리고 '투피스형'과 '원피스형'이 모두 4% 이하를 차지하였다. 이는 〈표 4〉에서 나타났듯이 서울·경기·인천지역은 '병동에 따라 다른 옷감이나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없기에 이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사료된다.

착용 간호사복의 무늬여부는 서울·경기·인천지역은 약 67.7%가 있는데 비해, 대전·충청지역은 42.8%가 무늬가 있는 옷감을 사용하고 있어 서울·경기·인천지역이 상대적으로 무늬있는 옷감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착용 간호사복의 색상은 두 지역 모두 '흰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특히 대전·충청지역은 89.0%가 '흰색'을 사용하였고, 이외에 '녹색'이나 '분홍색'은 병동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방에서의 흰색 선호도가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아이보리색'을 14.4%나 사용하였고, 이외에 '녹색', '분홍색', '하늘색'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캡착용 및 스타킹 색상 관련 문항에서도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간호 업무시 캡 착용여부에서 대전·충청지역은 65.2%가 '반드시 착용'하고 있었고,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가 26.9%인데 비해 서울·경기·인천지역은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가 77.4%나 되었고, '반드시 착용'하는 경우는 21.0%로 나타나 지방 간호사들의 캡 착용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캡 착용 선호도를 살펴보면 두 지역 모두에서 캡을 '착용하지 않는 편이 낫다'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경우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비율이 12.6%로 대전·충청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대전·충청지역에 비해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간호사들의 캡착용과 관련된 선택의 폭이 좀 더 넓고 자유스러운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캡착용 및 스타킹 색상 관련 문항의 지역별 차이분석

문항	항목	지역		대전·충청(n=381)	
		서울·경기·인천(n=437)	대전·충청(n=381)	빈도	Col %
간호업무시 캡 착용여부	반드시 착용	91	20.97	240	65.22
	대부분 착용	5	1.15	24	6.52
	가끔 착용	2	0.46	5	1.36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	336	77.42	99	26.90
$\chi^2 = 205.894^{***}$					
캡 착용 선호도	필수적이다	11	2.53	23	6.32
	크게 필요하지 않다	115	26.44	132	36.26
	착용하지 않는 편이 낫다	254	58.39	189	51.92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르도록	55	12.64	20	5.49
$\chi^2 = 25.165^{***}$					
스타킹 색상 선택	비둘기색 사용	1	0.23	5	1.36
	살색 사용	193	44.37	97	26.43
	비둘기색, 살색 겸용	159	36.55	210	57.22
	커피색 사용	23	5.29	4	1.09
	양말 착용	47	10.80	42	11.44
	자유롭게 선택	12	2.76	9	2.45
$\chi^2 = 50.170^{***}$					
스타킹 색상 선호도	비둘기색만 사용	3	0.70	6	1.65
	살색만 사용	168	39.21	76	20.94
	비둘기색, 살색 겸용	156	36.19	212	58.40
	각자의 취향대로 선택	103	23.90	69	19.01
$\chi^2 = 46.059^{***}$					

스타킹 색상을 보면 대전·충청지역은 '비둘기색, 살색 겸용' 이 57.2%, '살색 사용' 이 26.4%, '양말 착용' 이 11.4%로 나타났고,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경우 '살색 사용' 이 44.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비둘기색, 살색 겸용' 이 36.6%, '양말 착용' 이 10.8%를 차지하였고 '커피색 사용' 도 5.3%를 차지해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간호사들이 스타킹 색상의 선택에 있어서도 선택의 폭이 더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스타킹 색상 선호도에서 대전·충청지역은 현재의 스타킹 색상선택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비둘기색, 살색 겸용' 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한 경우가 과반수 이상인 58.4%나 된 것에 비해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경우 현재의 스타킹 색상선택에서 비율이 높았던 '살색만 사용' 과 '비둘기색, 살색 겸용' 이 높았고, 이 외에 '각자의 취향대로 선택' 하고자 하는 경우가 23.9%나 차지

하여 스타킹 색상 선호도에서도 캡 착용 선호도와 마찬가지로 간호사 개개인의 취향 및 선택을 중시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7〉에 간호사복의 사이즈 선택 현황 및 사이즈 선택 선호도에 대해 정리해 놓았는데, 간호사복 사이즈 선택을 보면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경우가 대전·충청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각자의 치수를 재서 맞추다' 의 비율이 높았다.

간호사복 사이즈 선택 선호도에서는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경우 대전·충청지역보다 '현재의 사이즈 체계에 만족' 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체형별로 구체적 사이즈체계가 필요' 하거나 '다양한 사이즈체가 필요' 하다는 비율은 대전·충청지역이 높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맞춤복이 개인의 신체특성을 잘 반영해 주기 때문에 서울·경기·인천지역 간호사들의 현재

〈표 7〉 사이즈 선택 관련 문항의 지역별 차이분석

문항	지역	서울·경기·인천(n=437)		대전·충청(n=381)	
		빈도	Col %	빈도	Col %
간호사복 사이즈 선택	각자의 치수를 재서 맞춘다	399	91.72	286	77.72
	대·중·소 등 구분된 것 중 선택	36	8.28	82	22.28
$\chi^2 = 31.200^{***}$					
간호사복 사이즈 선택 선호도	현재의 사이즈체계에 만족	163	37.64	92	25.00
	다양한 사이즈체계 필요	50	11.55	68	18.48
	제형별로 구체적인 사이즈체계 필요	220	50.81	208	56.52
$\chi^2 = 17.693^{***}$					

사이즈체계에 대한 만족도 다소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간호사복장의 병원규모별 차이 분석

종합, 준종합병원에 대해 설문조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문항들에 대한 빈도와 퍼센트, χ^2 검증을 실시하여 병원규모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본 결과, 여러 문항에 있어서 $p <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중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에 대해서 〈표 8〉와 〈표 9〉에 각 항목의 빈도와 퍼센트 및 χ^2 값을 함께 제시하였다.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병원규모별로 간호사의 학력 및 간호사 직위 구분방법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는데, 종합병원의 경우가 준종합병원보다 간호사들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음으로 간호사 직위 구분방법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의 경우 '직위에 따라 다른 디자인이나 옷감'을 사용하는

경우가 88.4%나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일률적인 디자인과 옷감'을 사용하는 경우로 나타나 '병동에 따라 다른 디자인이나 옷감'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이에 비해 준종합병원은 병동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디자인과 옷감'을 사용하는 경우가 41.1%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은 11.6%만이 '일률적인 디자인과 옷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직위에 따라 다른 디자인이나 옷감'을 사용하는 경우가 준종합병원의 경우 32.1%, 그리고 '병동에 따라 다른 디자인이나 옷감'을 사용하는 경우도 26.8%나 되어 종합병원과는 큰 차이점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표 9〉에서는 간호사복에 관련된 여러 문항들에 대한 병원규모별 차이점을 함께 정리해 놓았다.

우선 현재 착용중인 간호사복 디자인은 종합병원에서는 '블라우스와 바지 등 형태가 크게 변화'된 경우가 49.1%였고, 형태가 '변형된 원피스나 투피스'의 경

〈표 8〉 학력 및 직위 구분방법에 대한 병원규모별 차이분석

문항	지역	종합병원(n=438)		준종합병원(n=380)	
		빈도	Col %	빈도	Col %
학력	고졸	2	0.46	3	0.80
	전문대졸	284	65.44	341	91.42
	대졸	99	22.81	25	6.70
	대학원 이상	49	11.29	4	1.07
$\chi^2 = 83.634^{***}$					
간호사 직위 구분방법	병동에 따라 다른 디자인이나 옷감	0	0.0	102	26.84
	직위에 따라 다른 디자인이나 옷감	387	88.36	122	32.11
	일률적인 디자인과 옷감	51	11.64	156	41.05
$\chi^2 = 290.576^{***}$					

〈표 9〉 간호사복 관련 문항의 병원규모별 차이분석

문항	지역	종합병원(n=438)		준종합병원(n=380)	
		빈도	Col %	빈도	Col %
착용중인 간호사복 디자인	고전적 원피스나 투피스 형태	51	11.64	111	29.21
	변형된 원피스나 투피스 형태	172	39.27	104	27.37
	블라우스, 바지 등 크게 변화된 형태	215	49.09	165	43.42
$\chi^2 = 41.652^{***}$					
착용 간호사복의 무늬 유무	있다	307	70.09	152	40.00
	없다	131	29.91	228	60.00
$\chi^2 = 74.815^{***}$					
착용 간호사복 색상	흰색	402	91.78	275	72.37
	녹색	16	3.65	28	7.37
	분홍색	20	4.57	9	2.37
	아이보리색	0	0.0	63	16.58
	하늘색	0	0.0	5	1.32
$\chi^2 = 95.638^{***}$					
간호사복 사이즈 선택	각자의 치수를 재서 맞춘다	336	77.78	349	94.07
	대·중·소 등으로 구분된 것 중 선택	96	22.22	22	5.93
$\chi^2 = 42.264^{***}$					
간호 업무시 캡 착용여부	반드시 착용	139	32.33	192	51.61
	대부분 착용	19	4.42	10	2.69
	가끔 착용	6	1.40	1	0.27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	266	61.86	169	45.43
$\chi^2 = 32.456^{***}$					

우가 39.3%, '고전적 원피스나 투피스' 형태가 11.6%였다. 이에 비해 준종합병원은 '블라우스와 바지 등 형태가 크게 변화'된 경우가 43.4%였고, '고전적 원피스나 투피스' 형태와 '변형된 원피스나 투피스'가 각각 29.2%와 27.4%로 종합병원에 비해 '고전적 원피스나 투피스' 형태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착용하는 간호사복의 무늬 유무에 대한 문항에서는 종합병원의 경우 70.1%가 무늬가 '있다' 인데 비해 준종합병원은 60%가 무늬가 '없다' 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또한 착용하는 간호사복의 색상에 대해서는 종합병원의 경우 91.8%가 '흰색' 이고 '분홍색' 과 '녹색' 이 각각 4.6%, 3.7%인데 비해, 준종합병원은 72.4%가 '흰색' 이고, '아이보리색' 이 16.6%를 차지해 종합병원과 대조를 이루었으며, 그 다음으로 '녹색', '분홍색', '하늘색' 의 간호사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복의 사이즈 선택에 대한 문항에서는 종합병원의 경우 '각자의 치수를 재서 맞춘다' 가 77.8%, '대·중·소 등으로 구분된 것 중 선택' 하는 경우가 22.2%인데 비해 준종합병원은 '각자의 치수를 재서 맞춘다' 가 94.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간호 업무시 캡 착용여부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에 비해 준종합병원의 간호사들이 업무중 캡을 '반드시 착용' 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캡을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 는 경우가 준종합병원은 45.4%인데 비해 종합병원은 61.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병원규모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간호사가 착용하는 간호사복 착용현황에 대해 조사하고자, 서울·경기·인천지역

및 대전·충청지역의 종합 및 준종합병원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복 착용 전반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간호사들이 주로 착용하는 간호사복 형태는 '바지투피스형'이 가장 많았고, 간호업무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간호사복 형태 역시 '바지투피스형'이 가장 많았고 '직위 및 병동에 따라 다른 형태', 또는 '개성 및 필요에 따른 자유로운 형태'도 요구하고 있어, 간호사복에 있어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옷감형태 및 색상을 살펴보면 '흰색계열'에 '무늬'를 사용하는 병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간호사들이 가장 바람직한 간호사복 색상으로 여기는 것은 '직위 및 병동에 따라 다른 색상'의 간호사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복 사이즈 선택에 대해서는 '각자의 치수를 재서 맞추는 형태'로 나타났고, 간호사가 과반수 이상이 '다양한 사이즈체계가 필요하다'와 '체형별로 구체적인 사이즈체계가 필요하다'는 경우를 차지해 더욱 체형에 알맞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이즈체계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업무시 캡 착용은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가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캡 착용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간호사는 단지 4.3%였다. 스타킹 색상에 있어서도 '살색'이나 '비둘기색과 살색 겸용'이 80%이상을 차지하여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띄었고, '양말을 착용'하거나 '각자의 취향대로 선택' 하길 원하는 경우도 많았다.

2) 간호사복장의 지역별 차이분석 결과, 간호사의 연령에서 대전·충청지역은 '만 21~25세'의 젊은 간호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만 36세 이상'의 노련한 간호사의 비율은 서울·경기·인천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 직위 구분방법에서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는 '일률적인 디자인과 옷감'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전·충청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고, '병동에 따라 다른 디자인이나 옷감'을 사용하는 경우가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는 전혀 없는 것에 반해 대전·충청지역에서는 27%나 차지하였다. 주로 착용하는 간호사복 형태는 두 지역 모두 '바지투피스형'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경우 '투피스형'이, 대전·충청지역의 경우 '원피스형'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간호업무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간호사복의 형태에 대해서 서울·경기·인천지역은 '직위 및 병동에 따라 다른 형태'가 가장 높았고, 대전·충청지역에서는 '바지투피스형'이 가장 많았다. 착용 간호사복의 무늬여부에서 서울·경기·인천지역이 상대적으로 무늬있는 옷감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착용 간호사복의 색상은 두 지역 모두 '흰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특히 대전·충청지역은 89%가 '흰색'을 사용하여 지방에서의 흰색 선호도가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전·충청지역 간호사들의 캡 착용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았고, 캡 착용 선호도에서는 두 지역 모두에서 캡을 '착용하지 않는 편이 낫다'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경우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비율이 대전·충청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었다. 스타킹 색상을 보면 대전·충청지역은 '비둘기색, 살색 겸용'이,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경우 '살색 사용'이 가장 높았다. 스타킹 색상 선호도에서 대전·충청지역에 비해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경우 '각자의 취향대로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스타킹 색상 선호도에서도 캡 착용 선호도와 마찬가지로 간호사 개인의 취향 및 선택을 중시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간호사복 사이즈 선택을 보면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경우가 대전·충청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각자의 치수를 재서 맞추다'의 비율이 높았다. 간호사복 사이즈 선택 선호도에서는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경우 대전·충청지역보다 '현재의 사이즈체계에 만족'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체형별로 구체적인 사이즈체계가 필요'하거나 '다양한 사이즈체계가 필요'하다는 비율은 대전·충청지역이 높았다.

3) 간호사복장의 병원규모별 차이분석 결과, 간호사의 학력은 종합병원의 경우가 준종합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간호사 직위 구분방법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의 경우 '직위에 따라 다른 디자인이나 옷감'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준종합병원은

병동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디자인과 옷감'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현재 착용중인 간호사복 디자인에서 준종합병원은 종합병원에 비해 '고전적 원피스나 투피스' 형태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착용하는 간호사복의 무늬는 종합병원의 경우 무늬가 '있다'가, 준종합병원은 무늬가 '없다'가 더 높아 대조를 보였다. 또한 착용하는 간호사복의 색상은 '흰색'이 가장 많았고 준종합병원은 '아이보리색'이 종합병원에 비해 많았다. 간호사복의 사이즈 선택은 준종합병원의 경우 '각자의 치수를 재서 맞춘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또한 준종합병원의 경우 캡을 '반드시 착용'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종합병원은 캡을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재 간호사복은 이전에 비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에 따라 간호사복의 기능성과 심미성에서의 만족도는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재 및 디자인, 사이즈 측면에 있어서 많은 연구 및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서울·경기·인천지역에 비해 다른 지방의 경우 일반병원이나 의원의 비율이 종합 및 준종합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아직까지 간호사복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한 일반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간호사복의 디자인 측면 뿐 아니라 간호업무시 주로 행하는 동작에 따른 불편정도나 간호사복의 부분별 만족도 평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심순화, 임상간호사의 간호유니폼에 대한 선호경향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2) 被服構成學要論, 社團法人 日本纖維製品消費科學會, 1982.
- 3) Elizabeth M. Janieson, Mary F. Sewal, Eleanor B. Suhrie, Trends in Nursing History, Sixth ed., Inid., 235-236, 1987.
- 4) Dolan J. A., History of Nursing, 12th ed., W. B. Saunders Co., 1957.
- 5) The lides of style, "In professional grab from 1891 to 1941", *Trained Nurse & Hospital Review*, 106, 206-211, 1941.
- 6) S. Szasz, The tyranny of uniforms in Socialization, Sexism and stereotyping, ed. by Muff. J. & St. Louis, The C.V. Mosdy Co., 397-401, 1982.
- 7) Hughes E., Proulx J., "You are what you wear", *Hospitals*, 53, 113-114, 1979.
- 8) 이영복, 간호사, 수문사, 1977.
- 9) 이경희, 간호원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석사학위논문, 1987.
- 10) Horn M. J., *The Second Skin*,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81.
- 11) 이순원·이은영, 의생활 계획,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986.
- 12) Mangum S., Garrison C., Lind C., Thackeray R., Wyatt M., "Perceptions on nurses' uniform", *Image*, 23, 127-130, 1991.
- 13) 간협홍보부, 간호원의 이상적인 유형과 몸차림, 대한간호, 10(5), 64-65, 1971.
- 14) 김 조자·이원희·허혜경·김창희·홍선경, 간호사의 복장 형태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조사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3(4), 631-648, 1993.
- 15) Sparrow S., "An Exploration of the role of the nurses' uniform through a period of nonuniform wear on an acute medical ward",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6, 116-122, 1991.
- 16) 정연희·김석범·강복수, 의사와 간호사의 복장에 대한 의사, 간호사 및 환자의 견해, 영남대학술지, 13(2), 324-344, 1996.
- 17) Hawkey B. & Clarke M., "Dress sense or non-sense?", *Nursing Times*, 86(3), 28-31, 1990.
- 18) 조영숙, 간호원의 간호복장에 대한 견해조사 연구, 대한간호, 21(2), 59-70, 1982.
- 19) 이정옥, 임상간호사의 간호유니폼에 대한 선호경향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20) 김정숙, 간호사의 복장에 대한 조사연구-간호사, 의사, 일반사무직, 환자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